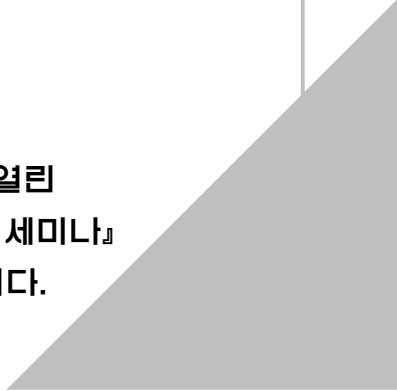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이슈 세미나 기록집

2020.05.16.

이 기록집은 2020년 5월 16일에 열린  
『코로나 19이후, 지역문화예술 온라인 세미나』  
를 녹취 및 편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Cultural Policies)

주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세미나 기록집>에 실린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세미나

- 일 시 : 2020년 5월 16일(토), 11:00 ~ 17:00
- 장 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
- 주 제 :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의 상생전략
- 주 최 :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주 관 :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 후 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프로그램

○ 진 행 : 온라인 방송 토론회

○ 사 회 : 임학순(기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구 분	주 제	내 용	토론 패널
세션 I	코로나19, 위기의 지역문화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지역문화재단 현장의 인식은 무엇인가?</li> <li>▷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 위기는 무엇인가? 기존에 지역문화가 갖고 있던 문제점과의 연계성, 차별성은 무엇인가?</li> <li>▷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가의 삶과 역할은 무엇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당금(푸른연극마을 대표)</li> <li>- 배윤수(전지연 사무국장)</li> <li>- 김지원(한광연 사무처장)</li> <li>- 안태호(웹진 예술경영 편집장)</li> </ul>
세션 II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위기, 지역문화재단 및 공공부문의 대응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li> <li>▷ 지역문화정책의 위기 진단 및 대응 시스템의 실태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li> <li>▷ Untact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소통과 공유 방식, 그리고 심사체계는 무엇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승진(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li> <li>-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li> <li>- 김자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본부장)</li> <li>- 장세길(전북연구원 연구위원)</li> </ul>
세션 III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이후,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지역문화의 위상과 가치는 무엇인가?</li> <li>▷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가상공간의 의미와 전망은?</li> <li>▷ 전염병 뉴노멀 시대, 지역문화정책의 과제는 무엇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종은(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li> <li>- 추미경((사)문화다움 대표)</li> <li>-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li> <li>- 전고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li> </ul>

## ■ 1부 - 코로나19, 위기의 지역문화현장

---

- ▷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지역문화재단 현장의 인식은 무엇인가
-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 위기는 무엇인가?  
기존에 지역문화가 갖고 있던 문제점과의 연계성, 차별성은 무엇인가?
- ▷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가의 삶과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자 :

---

임학순(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이당금(푸른연극마을 대표), 배윤수(전국지역문화재단 前사무국장)

김지원(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안태호(웹진 예술경영 편집장)

○ 임학순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임학순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코로나 19, 문화예술계에 충격, 위기,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이러한 코로나 19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세미나에서는 크게 1부 위기 진단, 2부 위기 대응에 따른 문화정책 체계, 마지막 3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문화현장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광역문화재단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광역문화재단에서 바라본 지역문화 위기 현장 이야기로 토론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원   광역문화재단에서는 지난달에 각 재단에 피해상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정부기관에서 지원 대책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각 재단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라잡이 역할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저희 광역문화재단연합회 TFT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현장에서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고, 그 피해의 구체적인 실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 분야에 관련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각 지역에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의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예술 현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개월 가까이 모든 예술행위들이 중단되었고, 어떻게 보면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공연과 전시가 겨우 일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느 영역보다도 재앙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지역문화 현장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광역문화재단과 달리 또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배윤수 앞서 한광연 김지원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면서 피해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2월 경계단계를 1차로 저희가 조사했고요. 2차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시기를 저희가 2차 조사단계로 삼았습니다. 1, 2차 조사기간 동안 중복 누적된 피해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총 피해규모만 현상적으로 산술평가를 했을 때 49억 4,300만원 정도가 총 피해액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 전지연 회원재단 기관 중 1차가 38개 기관이고, 2차가 34개 기관입니다. 누적 응답 기관으로 따지면 72개 기관인데, 이 부분들을 다 누적 중복된 예산들을 배제하고 저희가 총 피해규모액이 49억 정도니까 50억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주요 대응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로 피해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피해현황에 대한 부분을 크게 네 분류를 했는데, 문화시설 대관 수입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공연예술단체, 즉 기획공연이나 아니면 계약

법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물들, 그다음에 각 기초지자체는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단위 지원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예술인, 또는 예술강사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수입 감소분이 꽤 상당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문화복합공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또는 문화시설로 카페들을 운영하는 입주단체들이 있는데, 이 입주단체들에 대한 피해도 꽤 있었습니다. 대응방안으로써는 대관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액 환불이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공연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문체부가 적시한 표준계약서에 근거해서 계약금을 50% 지급해준다든가 아니면 기획운용비, 즉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부분을 인정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독특한데요. 여기는 사실 매니저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100%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경기지역에 있는 기초재단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나 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00명에게 정산 없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하고 입주단체 부분은 조금 이게 경계가 애매해서 사실 대부분은 임대수수료, 이 부분은 감면 시행하거나 전면 감면해주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들은 사실 기초단체들 같은 경우는 문화기반시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 문화회관이나 이쪽과 관계된 공연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부분 면밀히 바라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회계, 계약법 지침에 의하면 사실 선급금이 지급되



게 되어 있는데, 내부 사정들, 그러니까 업무의 수월성, 편의성 문제 때문에 사실 선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전면적인 계약관계법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임학순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단 예술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지원기관으로서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상의 위기상황,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원과 관련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문화예술계 분들의 반응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지원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지원 일단 광역문화재단들이 대부분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봉착했던 게 사업설명회를 제때 할 수가 없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심사까지는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코로나19 피해 관련해 전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 공연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근 90% 이상, 전시도 근 90% 이상 일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이상의 일체의 어떤 활동들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결국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의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방금 배윤수 사무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금 자체를 선지급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산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문제들, 또는 사업의 기간

을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다 마무리되는데요. 지금 현재 긴급지원금 형태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넘어서서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할지 지금의 문제는 더 이상 그동안 진행되었던 예술현장에 적용시켰던 일반적 지침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술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원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이 되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지금 두 지원기관,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지역문화현장이 정말 붕괴, 초토화, 위기,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체계 역시도 회계 문제라든가 또 대체활동에 대한 범위문제라든가 또 성과지표 등등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약한 현장이 문화예술현장 자체인데,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당금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을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이당금    몸소 체감하는 온도가 코로나19의 온도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많이 심각하고요. 모든 게 다 멈춰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연예술에 관련된 예술가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스태프 인력들이 공연현장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고, 현장을 떠나서 아르바이트라든지 단기 고용직을 통해서 수입을 근근이 벌어서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자리마저 지금 놓치고 있고,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공연예술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 현상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예술가가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그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벌써 5개월째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기대들이 과연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시기의 것만 있을 것이냐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위험의 요소는 지금에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 또는 내년까지 그게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7개 지역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광주를 비롯해서 전주, 구미, 대전, 대구, 부산, 강원도까지 7개 네트워크에 제가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느냐.’ 서로 위로도 하고 또 고충도 들어보는데, 다 똑같습니다. 지금 대구는 직격탄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 는 사회적 기업인 동시에 문화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또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많은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30명 정도 되는데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직장을 잡으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대전, 부산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느 단위지역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좋아지거나 더 나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똑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문화예술계의 움직임은 지역의 행사를 통해서 또는 지역의 어떤 공연들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수입들이 1년을 버텨나가고, 그다음 작품을 창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 원동력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대표들은 극장 문을 닫아야 되고, 임대료는 처음에는 임대료가 낮아진다, 50% 절감이라고 하지만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팀들은 임대료 저하를 가져다줄 수 있겠지만 사실 민간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료가 치솟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도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멈춰버리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사실 고민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학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위기, 긴급 상황, 단기 처방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향후 예술가 개인의 활동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 문화예술생태계까지 파급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마 이게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예술활동 현장, 축제도 그렇고, 문화이벤트, 또 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각 영역별로 조금씩 이게 파급 경로라든가 구조, 효과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적인 처방, 또 종합적인 처방의 단계를 넘어서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토론도 하시고, 이런 논의를 많이 추진하셨는데, 안태호 편집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 코로나 위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안태호 앞에서 구체적인 피해에 관련된 내용들은 말씀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 혹은 세계적으로 삶의 조건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술인만 예외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런 측면들

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몇 개의 토론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예술인들 현장토론회도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제 눈을 가장 끌었던 게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위기라는 게 결국은 위기상황에서 본질을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예요. 말하자면 현재 위기라는 게 꼭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온 것이었느냐는 질문을 하는 예술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보통 1, 2, 3월, 3월까지의 예술가들이 대개 춘곤기라 그러면서 따로 별도의 예술수입은 없었거든요. 물론 다른 조건들이 허물어지면서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예술수입은 공공기관이 실제 예산이 풀리면서 활동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과정들을 통해서 예술정책 혹은 문화정책의 본질을 어디서부터 다시 만들어나갈 것인가, 현장의 다이내믹을, 그런 역동성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 소개해주신 것처럼 무정산 사업을 하거나 혹은 증빙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간소화하거나 심사과정들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방식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긴급지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증빙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냉소를 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위기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어떤 기관이라는 곳은 좀 나른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위기를 비상하게 인식하고 본질을 즉시하면서 새롭게 상황을 구성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 임학순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다루려고 했던 사안인데요.

‘과연 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감염병이라는 요인 때문에만 생긴 것이냐. 지역문화현장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취약한, 또 열악한 환경적인 측면도 역시 여기에 작용했을 것이다. 왜 우리의 고리가 약했는가. 그리고 왜 코로나19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야만 했는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지역문화현장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태호     제가 이래저래 살펴보니깐 제일 취약한 게 사실 그 와중에도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재난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부자 나라하고 빈국하고 재난이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 내에서도 혹은 예술에서도 재난이 평등하게 나타난 게 아닌 것 같아요.

○ 이당금     맞습니다.

○ 안태호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같은 지역에서 사실 지원 사업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자원들도 많고, 사업의 전형적인 방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본 예 중에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50억을 내놓으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털었어요. 기금은 이럴 때 긴급하게 쓰라고 있는, 어쨌든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천에도 눈에 띄는 사례가 있었는데, 연수문화재단이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올해 국제교류 사업들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사업들이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사업을 통해서 아예 그것을 예산 변경해서 긴급지원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꿔내는 과정들, 사업을 고집하고, 미루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인식의 전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예

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도 6,000명을 대상으로 준비했는데 1만 4,000명이 넘게 왔거든요. 그런 종류의 일들이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제일 많이 얘기되는 지점들 중 하나가 어쨌든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서울·경기·인천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술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역에는 그만큼 인식들이 덜 합니다. 홍보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알지 못하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재난에 지원되는 지원이나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전 지역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지원 사실 저희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뉴얼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안태호 편집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지역단위 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행사를 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형태였다가 최근 들어서 긴급지원 형태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다 보니까 일부 선제적인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또 광역 내에서도 보면 광역시하고 광역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광역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문화현장에서 훨씬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행정체계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보면 어찌 됐든 피해가 가장 많은 영역들이 공연예술 쪽이잖아요. 그러면 공연예술 쪽을 현재 단계 내에서 무한정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하반기로 미룬다손 치더라도 공연장을 또 어디서, 어떻게 대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전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부 유튜브 생중계랄지 또는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상이랄지 이 플랫폼 자체가 눈높이들을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갖다, 가령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용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지역의 케이블TV나 지역방송하고 연계한 형태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방송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향유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관련한 문화행정의 역할들, 매개의 역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임학순 지역문화정책 측면에서도 너무 관행중심으로 정책을 펴지 않았는가,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라든가 대응, 이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전히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협치, 협력,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우리가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 현장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다. 등등해서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요인 말고도 지역문화가 갖고 있는 내적인 요인들이 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 배윤수 앞서 편집장님이나 김지원 실장님, 이당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다 공통으로 화두가 될 수 있는 것,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위기재난 상황들이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는 지적인 것이죠. 그 부분을 모두 다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계 언론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변수로서 존재하는 위기상황이 아니



죠. 기후환경이나 아니면 전염에 대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태까지 몰고 온 전염병에 대한 문제들까지도요. 그랬을 때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서 예시했던 경기문화재단 사례라든가 연수문화재단 사례라든가, 이 역시 기초와 광역,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한광연, 전지연이 함께 TF팀을 구성하면서, 포럼도 한 2회 정도 개최했었죠. 스몰파티 형식으로 토론회도 가졌었는데, 주된 화두가 그때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된 부분, 또 지방재정 유형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 자체와 문화 분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국가재난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위기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이 부분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긴급성과 시의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아주 적재적소에 내려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 임학순      그렇죠.

○ 배윤수      사실 이게 위기재난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됐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월 24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되게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앞서 피해현황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 그 다음에 지역자치와 문화 분권 시대에서는 재정 이양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초가 다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있는 핫이슈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재난상황들이 일상화되고, 변수가 아닌 상수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역만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이양에 대한 부분,

앞서 행정절차나 아니면 문화정책에 대한 키워딩은 또 이후의 토론에서 다루겠지만 저는 긴급하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 이양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이 부분들이 그냥 미온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어져서 이런 상황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제가 자치 문화 분권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19 상황이 그것을 조금 더 앞당기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문화재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역할들이 새롭게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동안의 현상들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적 피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코로나19 현상은 문화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이게 문화생태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문화와의 관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정서, 심리, 이런 요인까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총체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당금 선생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당금 예술은 인간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제가 앞으로 예술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안태호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험이 과연 지금 시작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술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이미 그전부터 노출되어 있는데 항상 임시방편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대체하고, 또 그것을 지나면 다른 식으로 잊혀져버린 다든지 또 다른 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는 고민하지 않고 항상 드러났을 때 드러난 상처들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일회용으로, 이런 식으로 상처를 때우고 예술가들에게 정책을 지원하고, 일시 지원 자금을 주면서 정책을 만들어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의 정책들이 계속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이슈는 예술가로 살아나고 싶어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렇게 초위험 직종으로 분류돼버리고, 예술가라는 직종을, 직업을 갖게 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이 되었다 보니 정작 지금의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한국에서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이미 전부터 노출되어 있던 정책들의 문제들을 이제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이슈들이 과연 무엇일까, 기초재단이라든지 광역문화재단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정책으로 불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수급은 되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올해 1년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그다음 연도에 작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장기적으로 1년, 2년차, 3년차, 5년차,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특히 지역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광주의 예산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은 지금 광주는 사실 미디어아트라든지 미술 쪽에 더 많이 집중돼 있고, 광주비엔날레라든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라든지 그러면

서 예산들이 집중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무대공연예술, 현장예술가들의 열악함이 더 심해져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예술, 문화예술 공연계에서 무대예술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럼 관객들은 무엇과, 사람과 사람, 인간의 본질을 접근하는 그 예술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광주 자체에서 점점 그 자리가 협소해지고 있어요.

제가 93년부터 연극을 시작했는데, 93년도부터 연극문화가 굉장히 활발했다가 광주비엔날레 생기고, 영화제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서 그에 비해 무대공연, 음악가들, 공연자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축소되고, 아주 작은 시장 안에서 치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힘들고 피폐해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 세대들과 문화예술을 함께하자.’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슈는 한국에서 예술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리고 그 한국에서 예술가로서 살아나는 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살아져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 임학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예술가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예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술가의 어려운 위기상황, 이 부분을 예술가의 문제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한국사회의, 또 지역사회의 예술과 인간의 문제까지, 나아가서는 정말 지구촌의 이슈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안태호     제가 아까도 사업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이번에 위기 국면에서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개별 소비주체들이 활동을 진작해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혹은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단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개별 예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국가 전체에서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별 예술가들의 존재, 예술가 생태계 내에서 예술가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예술가들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살려내고, 진작하고, 이당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위험 직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남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반추하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 임학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경제적 피해 대상으로만 예술가를 바라봤는데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실제 예술의 욕구는 더 커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방식이 언택트(Untact)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한다든가 또 개인화된 것을 해서 그렇지, 인간의 예술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경제적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이렇게 피해자로서만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히려 새로운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역할과 위상과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응급 처방, 몇 달 정도의 생존, 이런 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접근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당금 사실 할 말은 정말 많은데요. 경제적 피해자,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고,

또 예술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같이 힘든 코로나 위기라든지 또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전쟁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할 때 사실은 예술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예술의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갈 것인데, 그래도 한 사람의 예술가, 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역할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 힘들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노출되어 있는 이것들이 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생각했을 때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공연예술계는 결국에는 사람과 공간이에요. 개인예술가, 프리랜서에게 지금 많은 지원들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에게는 창작지원 활동이라든지 공간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에게는 각 지역별로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전액 100만 원, 대전 같은 경우, 경기도 이렇게 한다고, 저도 자료를 검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인 것인데, 이 단기적인 예술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결국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는 이미 저희가 예술가로서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무대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 플랜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극장에서 그들이 공연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업해서 고민한다든지 결국은 개인, 개인이 모이더라도 하나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임시적인 단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단이라는, 단체라는 이런 단체

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입법으로도 나오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예술인 기본급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정말로 한꺼번에 딱 정리해버리면, 법은 정리하면 통과해버리면 그 이상, 그 이하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에 있어서 기본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고용보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계를 주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가야지만 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예술의 위치가 정말로 선진국에 도달되어가는 그 지점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마저도 우리가 10여 년 전에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기고, 그나마 지금 어찌 됐든 예술인 개인,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예술정책을 하시거나 법안을 만들어내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큰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현장예술가로서의 위기감이 저희들에게 예술이 어떤 자리로 위치할 것인가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저는 협업이 많이 돼야 되는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연습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개인 화가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금 당장 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연습실을 내주고, 공간을 내주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배우, 예술인들이 일자리인데, 거기에 또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뭐 하는 것, 새 일자리로 계속 옮겨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임학순 예술가분들이, 또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사업비 중심의 지원 사업들도 이런 예술가, 아티스트, 그리고 예술단체들의 경영안정성,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들도 대폭 확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윤수 이당금 선생님께서 크게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문화기획의 영역,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획의 영역, 그 다음에 예술인의 영역, 이것은 다 마찬가지로지만 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얘기들 하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새로 전환시대를 맞이해서 존재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일자리 창출만 얘기하니까 ‘예술인을 또 창출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앞서 이당금 선생님께서도 ‘광역재단이, 그다음에 기초문화재단이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라고 반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고민들은 저희들도 늘 하고 있지만 앞서 선행된 이야기들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얘기, 아주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이라든가 행정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가 어떤 미션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 토론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앞서 우리가 한광연과 함께 주요 피해 현황을 조사하면서 ‘사업제안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어떨까요?’라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특이점으로는 이것은 좀 우리가 흔히 들었던, 아



니면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제안들은 했어요. 예를 들어 예술 재능은행이라는 제도, 이 부분은 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트뱅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지고, 또 아니면 재능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강릉문화재단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이런 시기에는 이게 위기재난상황 이어서가 아니라 항상 일상적으로 각 기초든 광역이든 정부든 중앙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단위별로,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문화예술생태계가 존립하지 않겠는가.’ 이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품을, 예술작품들을, 성과물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역이 문화 환류를 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 이것들은 늘 끊임없이 얘기되어왔지만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절차가 없어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당진문화재단에서 이런 비슷한 의견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 딜리버리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같은 재단들, 지역재단들이 일정 정도의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구매해서 이것들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역시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화권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전시장에 가서 아니면 어느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감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사업부터 아니면 작은 갤러리 사업까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지역으로 좀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산들이 그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앞서 이당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소공연장도 우리가 대형 공연장 규모에서 이제 중소 규모의, 그럴죠? 소규모 소극장 공연들이 사실 80년대부터 많이 활성화

화됐었죠. 그런데 그것도 뜻있는 독립예술가분들, 그리고 선진적인 예술가 여러 분들이 시행해왔지만 그 사업들조차도 유지를 못 해서 무너져버리는, 그리고 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지속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점들을 저도 계속 봐왔는데,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 사업들, 문화정책 사업들을 한번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되게 유의미한 사업들이 숨겨져 있고,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창발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가에 대한 자세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지원   저도 예술이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의 하위적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요. 더더구나 또 예술이라는 게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한가롭고 여유가 있을 때 즐기는 유희적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다면 사실 저희가 전혀 다른 측에서 예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미 문화예술은 국가의 국정지표로 설정된 지 오래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술인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다양한 플랫폼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여지를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태호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피해라고 보면 얼마 전에 예총이 피해 집계를 낸 것도 있었는데, 예술가들이나 특히 예술단체들의 역할은 피해를 증명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다른 지점들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총은 굉장히 중요한 예술단체잖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여전히 그런 종류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예총이 법적 지위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 묶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빈축을 사고 그랬죠. 민예총이나 다른 단체들도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못한 게 사실인데, 몇몇 단체들, 이를테면 거리예술협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담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피해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술계의 이슈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앞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예술계 현장들이 잘 참여하고 의견들을 수렴하느냐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단체들이 사회적 권리처럼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의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조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런 구조들의 알리바이로 계속 활용되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제 세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책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 자구책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예술가들이 사실 상

호부조 부분들에 대한 자기각성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최근에 만난 몇몇 예술가들이 그런 종류의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몇 여유가 있는 예술가들이 처음에 재원을 출현하거나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놓고, 각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상호부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도나 정책이나 국가에만 기대서 활동들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사실 구차한 부분도 있고, 사회적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녹색평론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실렸었는데요.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당연히 지향해야 될 지점이기는 하지만, 복지국가 논의가 이전에 있던, 우리 전통적으로 있던 상호부조 논의나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던거거든요. 예술계에서 비슷한 적용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당금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저희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 피해’ 하다 보니까 정말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라고 하면 ‘뭐지?’ 이것은 사실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거예요.

○ 임학순     그렇죠.

○ 이당금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그런 피해들이, 이런 게 드러날수록 어떤 물질적인 피해들보다는 예술가들은 정신적으로 하는데,

그 정신적인 피해들이 더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술가들의 자기각성 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고, 상호 부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SNS상에서 정말 없는 예술가들이 10만 원씩 내서 자기 돈 10만 원을 다른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렇게 아트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참하고 싶은데 예술가들은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정말 그 10만 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원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예술을 빨리 펼쳐 보이는 것, 그것 하나의 바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 얼마간의 지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임학순      물론 긴급상황에서는 이런 경제적 피해에 초점을 둔 위기대응 긴급자금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이것을 단기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고 한다면 아마 문화예술가들의 존재는 더 높아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발적 영역에서의 서로 상호연계라든가 사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를 설정한 이유는 조금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긴급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예술가의 위상이나 존재, 또

이분들이 활동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가 거기에 걸맞은 지역문화정책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 안태호 다른 토론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말씀하신 플랫폼에서 영상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강조될 것 같기는 한데,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 안태호 영상으로, 지역에서 단체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이거나 유튜브에 업로드하거나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같아지니까 유튜브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이랑 넷플릭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나 그 영화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만드는 데 공만 들이고 거기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이당금 그러니까 지금 국립극단에서 일주일에 두 편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라가서 공연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끔씩 보는데, 조회수가 없어요.

○ 이당금 하물며 국립극단에서 국립배우들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극 조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정말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이 미디어센터정도 되어야만 하지, 우리 극장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한다고 클릭수가 있겠습니까?

○ 임학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따 3부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이제 말씀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예술가들의 작품이 올라가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게 돼 있습니다만,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게 종합적으로 세트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만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예술 공간,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3부 이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이슈로 다룰 계획입니다.

○ 배윤수 저희 자료들을 쭉 리뷰하고 정리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실 여기하고 시사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기사를 제가 접했어요. 5월 14일, 그저께인 것 같아요. 경향신문에 서울한국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님께서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점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길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축약하면 뉴노멀 시대가 열리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사회적인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다음에 문화적인 구조 안에서 아까 일자리 창출도 얘기 나오고, 피해액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한 문제겠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진정 우리가 로봇지능, 지능기계들이 도래했을 때 이것들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말 가려고 했을 때 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들은, 이제 그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대면 상황에 대한 접촉 지점 때문에 노동인력에 대한 수용성, 그다음에 수월성에 대한 편의성 부분을 계속 얘기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계속 창출해내는 기구에 있고, 종사자로 있지만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점으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존이 지난 3월 이후에 4월에 고용인원이 지금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사자들이 지능기계의 보조역할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안정적인 직업군이 아니라 지능기계의 보조 인력으로 쓰여지는 문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온라인플랫폼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들이 기능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은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안태호 거대 담론 차원에서 얘기해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발언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거든요. 웬 과학자분이 라디오 대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정리되더라도, 올해 정리될지, 내년에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된 이후에 우리가 해마다 코로나 시기, 일정 시기를 정해서 2주간 자가 격리 기간을 갖자. 코로나 사태를 좀 기념하는 상황을 갖자.’

○ 안태호 이 상황을 통해서 생태 관련 환경이나 혹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성찰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효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예술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위기는 어쨌든 정책의 본질을 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어쨌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사실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라고 해서 너무 그 성찰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국가적인 자부심이 너무 넘쳐나서 너무 순식간에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이태원 관련한 상황이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렇게 주어졌던 그런 고민의 순간, 반성의 순간들을 놓쳐서 예술정책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 김지원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위기의 국면이 결국은 개인과 또 집단한테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광역재단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지원 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설명회, 또는 워크숍, 또 정산, 일련의 과정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아주 범용적으로 적용됐던 문화예술 행정의 일반적 원칙이라는 게 하나도 적용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아마 과학자들이 진단하는 것은 꼭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배윤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의 문제라면 기존에 마치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왔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재점검의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이당금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에서 연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토론의 자리가 사실 그전부터 요구되고 바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광주에는 ACC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예술가를 함께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저는 한 번도, 토론회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반영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예술이 자리 잡고, 그 예술의 힘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가장 필요한 게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예술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지역단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관공서, 기관들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냥 페이퍼라든지 이런 양식이 아닌 같이 대면해서 토론하고 운운하고 그런 것을 같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술이 소통하는 것 아닐까. 관객하고 소통하는 게 예술인데 정작 행정가하고는 소통을 못 하면서 정책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조건을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 임학순      고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지역현장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의 몇 가지 함의점을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희가 논의를 해보니까 ‘오히려 위기상황이었지만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해야 하는 때다.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술인은 또 무엇인가. 또 여기에 관련돼서 지역문

화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슈들을 한번 던졌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조금 더 치밀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경제적 피해, 이런 측면에서 일단 단기 응급처방들을 많이 내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이후가, 지금 코로나 위기가 여러 가지 파장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지역문화 생태계를, 또 지역문화 정책체계를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지역문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문화분권, 또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분야가 기본 방향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토론, 네 분과 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 2부 -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

- ▷ 코로나 19 위기, 지역문화재단 및 공공부문의 대응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 ▷ 지역문화정책의 위기 진단 및 대응 시스템의 실태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 Untact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소통과 공유 방식, 그리고 심사체계는 무엇인가?

참여자 :

---

임학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강승진(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김자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장세길(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임학순 오늘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이라는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는 ‘위기의 현장, 지역문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문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월에 코로나19 문제가 본격 대두돼서 2월, 한 달 뒤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긴급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응정책을 발표했고, 또 3월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3월, 4월에는 지역문화재단이라든가 지역현장에서도 다양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진정 국면으로 가다가 다시 최근에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환경,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과연 지역문화정책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하는가, 이런 위기진단 및 대응시스템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긴급적으로 해왔던 공공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선지급을 했든지 대체활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든지 긴급자금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딜정책 등등,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애로사항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 강승진 코로나 초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문화예술 현장에는 보릿고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이 지원금에 대한 교부 신청과 활동이 시작된 것은 대략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말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이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긴급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즉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있어야겠다는 위기의식들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만날 수 있었던 예술가들과의

전화통화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이다 보니, 지역 사회가 작다 보니 그래도 면대면은 그 당시까지도 존재를 했던 것 같고요. 면대면들을 하면서 실상들을 파악해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위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기초현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눈에 다 보이는 사이즈이다 보니 서면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라기 보다는 일단 현장에 뭔가 긴급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대응했던 것이 예술인들의 창작 임차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시각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작업공간을 주로 지원했던 사업을 예술단체나 예술법인, 예술기업의 창고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공간까지 전면 확대해서 시행했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이라든지 청년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동이 안정돼 있거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규모가 크다고 하면 그 밑에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 구조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문화활동가라든지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이 갈 수 있는 루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구석000 활동가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예술가들과 활동가 영역, 기획자 영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현장에 돌아가면 그 이면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홍보인쇄물,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태계들조차도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디자이너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역에 있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각예술가들까지 좀 전폭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에 대

한 지원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릴레이포럼이라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릴레이포럼은 면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전한 거리두기, 슬기로운 거리두기의 지침을 준용해서 2m 간격으로 앉는 방식으로 7명씩 릴레이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스타트하는 7명만 선정하고, 그다음 오시는 예술가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분이 다음 주자를 불러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현재 이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현장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술가들과 그 논의들을 이어가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예술가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원과 활동지원보다도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현금이 예술가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구조들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포럼 또한 예술가들에게 회의비 형태로 최소한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예술가를 불러내는 방식은, 예술가의 사정은 예술가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당장 지금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형태들로 해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역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재단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 임학순     현재도 릴레이포럼을 하고 있나요?

○ 강승진     릴레이포럼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소통의 구조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예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언택트(Untact)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라도 모여서 협의 해가는 과정을 한다는 뜻이죠?

○ 강승진 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춘천에서 ‘전환문화상상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사업명으로, ‘100개의 화면, 100개의 이야기. 봄의 도시 춘천이 묻습니다, 당신의 안부를.’이라는 행사명으로 전국에 있는 100명의 예술가들을 화면으로 불러내는, zoom 통해서 100명을 극장으로 불러내는 작업들을 진행했었고요. 이 라운드테이블은 대단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보다 ‘너 괜찮니? 너 살아있니?’, ‘어, 나 살아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이런 안부를 전하는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몽클하기도 했고, 감동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대단한 정책과 이슈파이팅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립된 상황에서 연결돼 있구나.’ 그 작은 연대감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예술가분들께서 그 순간에, 그 화면으로 만났던 100명의 예술가들의 따뜻한 안부로 인해서 자기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다는 평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대응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 임학순 한 가지 여쭙보고, 또 다음 토론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춘천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 강승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의 의사결정방식이 굉장히 힘든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의사결정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으로 세팅이 돼 있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빠르게 전환해서 이 사업으로 풀어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 ‘전문예술인인가, 생활예술인인가, 전업예술인인가, 부업예술인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DB 자체가 없다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원 사업을 받은 수혜자 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술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 통계 자체가 없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들의 DB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DB 자체가 지역과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가 예술인 활동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문예술인 기준으로 대략 500~60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예술인까지 포지션을 넓힌다고 했을 때는 대략 1,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DB 자체가 없다 보니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학순**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원사업도 많이 실행하고, 광역단위의 더 복잡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해 진단하시고, 대응체계를 갖춰나갔는지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동혁** 우선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이런 것을 초기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측면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화예술 지원체계 자체가 1월, 2월, 이즈음에는 보통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 인천시의회 쪽에서 비교적 빠르게 ‘이 상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는 추경을 준비하고, 시의회가 그것을 승인하고, 인천문화재단 내에 인천 코로나19 피해지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사업은 몇 가지는 안 하는데, 일단 기준은 뭐였냐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일단 이 위기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직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보통 요즘 인천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지역화폐 사용처의 한계가 월세나 공과금, 통신비, 이런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현금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파악을 했고, 다행히 저희 재단 쪽에 기부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일단 직접 생계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하나는 대면해서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활동하는 온라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그냥 창작활동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기존의 어떤 것이라든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좀 연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소규모 활동들이 이루어지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공 공간 이외에 민간 공간에 예를 들어 음악공연을 하는 작은 바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온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과 연계하고, 그래서 공간 지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같이 상생할 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설계를 통해서 온라인 문화활동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 사무실, 연습실, 이런 곳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 연습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이런 사업들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로젝트 펀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에서 펀딩을 했을 경우에 40%를 펀딩하면 60%를 매칭해주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지금 말씀하신 게 클라우드 펀딩?

○ 손동혁     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4:6 비율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뒤에서 앞으로 갖춰가야 할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민은 이런 것이죠. 첫째는 이제 모든 공간이 폐쇄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오히려 이전에는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던 이런 오프라인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약간 어둠 속에서 코끼리 만지기 하듯이 그동안에 사실은 경험에 기대거나 몇몇 분들의 이야기 정도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이었다는 것이 사실 가장 부담이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던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예민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해가면서도 그런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더 많이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임학순    그 과정에서 아까 춘천문화재단 같은 릴레이포럼 등을 통해서라도 현장예술가분들과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떨습니까? 광역단위에서는 이런 소통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평상시에 안 만났던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공간에 대한 협업뿐 아니라 뭔가 방안을 모색하는, 혹시 이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 손동혁    실제로 정부 차원의 특별복무지침에 의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사회도 열 수가 없어서 서면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해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진행하고 하더라도 정말 소규모로 모셔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많은 분들과하고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술현장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는 굉장히 낯선 상태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길게 나누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거나 이런 소통의 채널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기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한 가지만 더 여쭙보자면, 광역문화재단 사업들이 또 상당부분 국가사업과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문체부라

든가 산하기관, 이것과의 협의조정과정,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 손동혁     현재까지는 사실 중앙정부, 특히 문체부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역 내에 안내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역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금 더 중앙기관이나 중앙정부들이 조금 더 뒤에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에 지역의 대응 중요성들, 그러니까 오히려 분권이나 자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왜 중요한지, 오히려 그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아직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인천에 연수문화재단이나 서구문화재단, 부평, 이렇게 기초문화재단 체계가 있는 곳에서는 그와 함께 또 연계해서 사업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뭔가 따로 또 같이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에서의 대응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기관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은 일차적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됐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갈 수 있는 방안들을 무엇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자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월 초에 문화부 담당부서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 진흥원 원장님 포함해서 다 긴급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놓인 회의 자료가 기재부의, 행안부의, 문체부의, 중앙방역관리본부의 각종 지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회의 아젠다는 이런 지침들을 반영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지역의 센터나 현장에 어떤 지침을 내보낼 것인지를 마련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아까 손 실장님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무엇을 하자.’라는 태도였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나 문화예술교육현장, 소위 말하는 현장의 가장 끝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제발 공문 좀 그만 내려라. 뭐 별로 차별화되지도 않는 비슷한 얘기들을 보고서 또 그것을 이해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그럼 중앙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대응의 지침들, 대응의 방식들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로 머리를 모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문화예술분야 기관이나 재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올해 사업예산들을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교육현장에 실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부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실제 연간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예술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과 시설 담당자가 협의하는 게 3월 중에 이루어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앙사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대면으로 협의를 하게 한다거나 학교 연간, 올해 하시려고 계획되었던, 계약되어 있는 소위 강사비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선급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또 이 시수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지원 사업에 유연화 방식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3월 말이면 개학을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온라인개학 이슈가 있어서 원격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강사 분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작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보자.’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긴급지원 사업으로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문화예술교육현장 활동가들이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는 제안서를 공모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한 200건 정도 선정 예정인데, 거의 1,800건의 제안서가 올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올 한 해 추진하는 연수도 한 40% 정도는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거나 또 교육현장에 어떤 방역물품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버전의 지침들을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애로사항이 문화부의 국민문화시설 서비스 운영방침,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서도 이런 단체 관람, 교육,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다양한 현장들이 있지만 또 문화시설도 그중에 한 축이고,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교육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모든 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교육활동 역시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고령자나 건강취약계층이 대부분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립문화시설의 개방 시기에 맞춰서 같이 재개하는 것으로 검



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서 상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도 육·해·공군 본부 자체 판단으로 외부인의 방문을 또 각자 마련하고 있고, 법무부와 협업하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 같은 경우 아예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시설별 개별 대응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예술교육단체나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건 그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계속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첫 번째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강사비의 선지급, 또 지금 교육활동 대신에 기획연구에 조금 같이 고민해주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화부는 지금 6월 이후에도 교육이 재개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올 한 해의 지원 사업금을 그냥 다 기획 연구 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면 전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과 대상과 이 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과거의 면대면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으로도 올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침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는 예전에 한번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이렇게 단선적으로 인식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경계, 사실은 비대면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오프라인 중심의, 면대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가능했었던 것인가.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는 항

상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또 새로운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문화예술교육이 자기주도성, 혹은 자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요소였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반영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면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교육 내용,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 임학순 어찌 보면 코로나19 환경이 기존의 면대면 상황 속에서의 흐름과는 또 다른 비대면 상황까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네요. 문화예술교육 같으면 부처 간의 협력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처 간의 협업이나 조정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위기를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또 아까 지침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지역현장에서 그게 통용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지역 현장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직면한 사항들이 혹시 있으신지.

○ 김자현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지침을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에 내보낸다 한들 아동복지시설이 따라야 하는 지침은 해당 지자체의 지침입니다. 중앙정부가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 특화해서 내려낸 지침도 참고는 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 지역에 위치한 지역 중심의 지침이기 때문에 아까 손 실장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상통해서 현장에 대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힘을 받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런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

는 것, 저희가 매번 지역협력팀에서 매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차원의 대응 현안들을 다 취합하고, 어떻게 공동 대응할 수 있을까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앞서서 끌고 갔다면 이제 저희도 N분의 1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지속되려면 어떤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지, 조금 일하는 방식에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세길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기초재단, 광역재단,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관의 놀라운 업무역량, 신속한 사업추진에 정말 대단히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어떤 기관이 필요하구나.’ 느낄 정도였는데요. 전국의 모든 재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했고, 예술기관들도 나름의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확산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강승진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을 구호하는데 그 대상이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이른바 기획자, 매개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다른 경우는 생활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는가, 이런 불분명한 대상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예술인을 한번 추정을 했어요. 예술인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으로 보면 1인 사업체나 기간제, 파트타임, 일용직을 보면 대체로 고용취약 예술인 규모가 한 7만 9,000명 정도, 그다음에 프리 예술인 규모는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증명 기준으로 보니까 고용취약예술인 규모가 한 3만 1,787명으로 추정이 되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추정된 숫자죠. 여기 계시는 기초광역재단에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 숫자 중에서 우리 지역에 누가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 구호를 하고 싶을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해서 재정을 지원하든 구호품을 지원하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뭔가 지원 사업을 혜택을 주는 형태, 간접적 지원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대상자를 평소에 파악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법을 바꿔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세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역재단, 기초재단, 예술기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이 만들어져 있어요. 재단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1년 이자 수익이 한 3억 2,000만 원인데, 이 돈이 매번 기금적립으로만 쓰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사실 긴급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으나 실제로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만들 돈이 없고, 결국에는 지자체에다가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추경을 세우고, 그 절차가 이미 몇 달이 지나고 그 사이에 예술인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 특히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제도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체계와 관련돼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재단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정부의 지침은 명확합니다. 중앙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확산해서 방역지침과 생활거리지침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요. 재단도 마찬가지로 각자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후에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에서 사실은 재단의 통일된 체계,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기관들의 통일된 체계, 기타 지자체의 문화 관련 시설단체들의 통일된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지침이 내려가서 동일한 피해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술가라는 것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재해·재난의 기록자로서, 또는 재해·재난에 피해를 받은 국민의 심리를 치유하는 지원자로서의 기능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은 쉽지 않은데, 그 이후에, 즉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법에서는 심리지원에 의한 절차나 체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의 활동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저희는 이런 기록, 심리 지원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록자로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한 현재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에 대한 예술적 기록, 또는 어려웠던 국가적 환란의 시기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인이 얼마든지 참여해서 현재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그 분야의 관계자들에 대한 구호나 이런 대책이 민간 대 민간으로 이루어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민간이 구매해

주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에서는 사실은 민간 대 민간의 역할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극히 공적 중심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가능했던 게 온라인 상에서의 작품 구매 정도이지 않나 싶은데요. 하나의 예로 김선아라는 다큐멘터리 PD가 진행한 오아시스 딜리버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가난한 집안은 가난한 집의 사정을 안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0만 원을 놓고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10만 원씩 주겠다, 신청해라.’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 지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일상이 회복되기 위한 차원에서는 민간에서 민간을 서로 상호 지원하고, 뭔가 같이 교류하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학순 바로 연관되는 질문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만약 일상화가 되고, 또 뉴노멀 현상으로서 앞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다음 단계 위기진단, 위기대응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재정의 문제, 또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이 문화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예술가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셨거든요. 계속 이 부분을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학순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 아까 또 중앙정부와 지방의 소통, 또 지역 안에서

도 관련되는 기관들과 소통, 이런 소통과 협업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게 다음 단계, 긴급 상황을 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 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장세길 박사님 의견과 확장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조금 더 논의가 풍부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동혁 일단 앞부분에서 저희가 위기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고 하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현장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지금은 저희들도 잘 준비되어서 이것을 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들 처음 겪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이런 상황들을 다 처음 겪다 보니까 저는 우선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안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 지점이 있는 것이죠.

○ 임학순 좀 유연한 체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 손동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결과가 가져오는 만약의 상황은 너무 엄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위해서는 유연성이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서로 허용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상황의 심각성이 끼치는 영향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또 서로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

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게 위촉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것을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현장에 술인들 입장에서 ‘당장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직접적인 제기가 가능해지는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지 지금이랑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은 첫 번째는 저는 상호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런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로 보고 상호 유연성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오히려 지원을 하고, 주로 재단이 지원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지원이라는 게 대체 계속 어디선가는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협력관계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바꾸자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협력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영역의 일을 함께해나가는, 또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런 위기상황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저는 상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단 입장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회를 하면서 정관을 개정했는데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저희 정관의 사업의 범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예술인 창작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술인 창작지원 및 예술인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은 창작지원 역할로 집중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인천예술인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개념으로 확장하



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예술인 복지영역 이든 또는 생애주기별이든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향후 사업 범위를 바꾸고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어찌 보면 지원 프로그램 중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의 복지, 또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 데이터베이스 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구축을 통해 입체적인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 손동혁 그렇죠. 첫 번째는 저는 파트너십,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으로 상호 인식을 전환하는 것, 그런 속에서 지역문화재단들은 오히려 그 프로그램 지원에서 예술인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영역들을 확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예술인 노동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이런 전환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상호 유연성이고, 그 상호 유연성 안에서 조금 더 실험적인 관계 맺기, 프로그램, 논의, 그런 관점에서의 논의들을 함께해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 임학순 아까 장세길 박사님 말씀하신 ‘문화예술분야에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 이것을 평상시에도 준비를 해서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 얘기는 보니까 최근에 제가 코로나 관련 문화 쪽의 담론을 보니까 몇 분이 또 이런 안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이런 자금을 미리 확보해놓자.’ 혹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손동혁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함께 논의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예술인들이 어떤 사회의 흐름 속에, 코로나19는 전체 사회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술인들의 지금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이런 위기상황이 불규칙하나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예술인들의 위기상황도 함께 해결해가는 부분으로 더 확장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승진 전반적으로 손동혁 실장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게 예술가나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관점에서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위기가 터졌고, 위기상황의 어떤 비교치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데이터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예술가들의 DB나 지원 대상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지원하는 조직의 DB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면 어쨌든 춘천문화재단은 춘천재단이기는 하지만 기초문화재단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 80여 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광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무언가를 한 재단이 있고, 무언가조차도 못한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사결정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재단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얘기를 늘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상황이 터졌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일종의 기준, 아니면 훈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의 관리기관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분명히 그 안에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어떤 지침들 속에서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활동의 폭을 열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재단의 구조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후에 개선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중간 지원조직의 거버넌스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손동혁 실장님 얘기했던 예술인들과 현장과 재단이 어떤 의사결정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디가 더 힘의 우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차제에 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재단의 이사회 구조가 좀 혁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재난사태 때 멈춰선 현장이 있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의 이사회 구조에서는 돌아가는 분들이 이 구조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 섰던 현장의 의사, 아니면 의견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열어놔요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역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중앙이라든지 광역 단위의 기금들은 존재하지만 기초문화재단의 자체 기금을 걷고 있는 재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금을 쌓아가는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지역, 아무래도 현장에 더 밀착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누가 조금 힘든지, 아니면 누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기초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면 그 현장의 논의나 커뮤니케이션들을 끌어내서 일종의 문화예술인

공제조합 같은, 아까 민간 대 민간의 협력구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촉진자로서 재단들이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임학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진행하시면서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체계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김자현 저희도 매일 대책회의들을 하면서 ‘다음번에 또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만, 한 축으로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겪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위기가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잘해낼 수 있을 것이야.’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런 불안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기관이나 일하는 태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앞서 말씀하신 상호 유연성이나 중앙 지원기관의 일하는 방식하고도 연결돼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저희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아르떼365 웹진에 박지선 프로듀서님이 소개해주신 핀란드의 코네재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의 긴급지원 사업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온라인 콘텐츠가 됐든 어쨌건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재단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원방식이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자신의 방식대로, 예술 쪽 방식대로 행위를 해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예술생태계를 상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것 하나하고, 그분이 또 언급하신 하나는 그 안내가 나왔던 홈페이지의 문구였습니다. ‘이런 공모를 하지만

이게 하다가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충분히 당신의 애초 계획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발전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색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겠다.’는 어떤 연대의 메시지가 그 홈페이지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굉장히 견고했던, 우리가 감히 건들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각종 지침과 지원사업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내고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런 틈새를 이렇게 해석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경험이 생겼다면 이후에도 굉장히 견고한 혹은 자기완결성 있는 지침과 제도와 이런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중앙기관으로서 또 지원기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나가고, 함께 상황을 모색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구현하려는 그런 가치들, 기대하는 현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각종 지원 사업이나 행정절차, 이런 구조들도 전환을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상상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학순** 아까 손동혁 선생님 말씀하셨던 유연성, 연구라든가 실험,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회계 정산이라든가 성과지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 등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유연한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쯤 확인한 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장세길** 방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서 예술가를 지원하자.’ 저도 이번에 지역문화재단 계획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제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 사업, 또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도에도 조례에 의

해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보조금 지원 지침이 있고, 거기에는 인건비성 지원이 안 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을 바꾸자.’라고 했더니 ‘기재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일지라도 정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체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술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결과물이 아닌 과정의 내용으로 지원하자.’ 이 부분은 별도의 법이나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사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재해·재난 긴급지원 및 향후 일상 회복을 위한 조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법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 안에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지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가능하다.’라는 식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태 이후에 저는 문화예술인들은 긴급구호나 지원, 일상회복과 관련된 것에 대한 조례가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이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지역문화재단에게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내달라고 해요. 그럼 지역문화재단은 즉각적으로 계획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면 재정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비돼요. 컨트롤타워가 현재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만들었

을 때 ‘이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화예술분야의 지원대책의 컨트롤타워는 방역 또는 기초문화재단이 맡는다.’라는 식의 체계를 명시화하면 아까 강승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자체는 지원해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사실 그래서 어떤 체계나 지원이나 제도의 방식은 결국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세부지침을 만들고, 이런 체계화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결국 지금 각 기관이나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손동혁 저는 여기서 한 말씀 조금만 보태면 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죠. 그랬을 때 저는 생활 속 거리두기 환경을 조금 더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공연장에 한 칸 띄어 앉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칸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그 한 칸의 의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상징적으로 어떤 마네킹이 사람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저희 전반적인 생활 안에서 생활 속 거리를 만들어주는 예술적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공공예술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장세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실제로 확진자 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들 완전히 달라진 사회, 거리두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소프트한 예술치료 영역들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옛날의 인식으로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사회 변화와 연동해서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예술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문화재단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전에는 그게 소규모였거나 없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창작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일정한 규모의 면대면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면대면은 소규모화하는 사업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가 벌어지는, 그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들이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그냥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재단이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사실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지원사업의 영역 안으로 수용하고, 꼭 이게 정책레벨이 아니더라도 현재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활 변화,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안으로 유연하게 문화재단이 사고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거기서 실험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적극성이 저는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학순 그래서 예술가나 기획자,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을 경제적 피해,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의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임학순     마지막 이슈는 이번에 언택트 상황이 되면서 심사과정 같은 데서, 아마 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화상회의 같은 것, 또 서면을 통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런 것을 꼭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단점도 있었습시다만, 저도 몇 번 참여한 과정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원 사업 신청하러 갔다가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시도했던 화상회의 방식이라든가 심사과정이나 이와 관련된 혹시 경험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세길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낮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언택트상황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발전하니까 그에 맞는 예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에 대한 격차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격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양극화하고 연동이 됩니다.

○ 임학순     그렇죠.

○ 장세길     201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60대 이상 디지털기  
계 활용 능력이, 앱 하나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율이 70.8%에 달합니다. 이게 또 저소득층하고 일반 국민하  
고 격차도 한 1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비대면  
으로 심사를 할 때 결국에는 디지털을 활용한 또는 화려한 기  
술을 써서라도 자신의 예술적 그것을 보여주려 하는데 취약계  
층,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등은 사실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죠. 그  
러면 이 부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심사방식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예술인들이 언택트산업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대에 맞는 디지털 활용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 사업들이나 교육 사업이 같이 병행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동혁 말씀하셨듯이 저도 일단 굉장히 낯설다.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나이 탓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도 있을 것이고, 낯선 환경들에 적응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측면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조금 더 장점이 많아서 한다거나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방식도 앞으로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해놓은 측면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됐든 재단이 만드는 회의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공간들에 실제로 그런 준비들이,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 준비를 어떻게 해놓고, 그동안 사실 그런 회의실이나 연습실, 공연장,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다른, 다른 기능들, 이런 언택 상황에서 또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어떤 기능,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공간은 줄고, 어떤 부분은 부가되어지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어떤 작품들을 영상화하는 것을 이전에 기록이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제2창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2창작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조성을

지역별로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래야 실제로 이게 각종 플랫폼 위에 올라갔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준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을, 수용자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이렇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이런 데처럼 실제로 이런 미디어센터와 예술계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의 문제가 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마지막 토론주제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함께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자현     저희는 올 9월에 전 세계에서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 ITAC이라는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디지털 전환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가치나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 리서치 중에 미국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의 컨설팅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분의 칼럼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 예술교육자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또 연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단어가 ‘Haft’ 단어였는데요. 그 뜻이 나무를 자를 때 도끼를 이렇게 높이 드는 힘, 높이 내려쳐야 한 번에 짝 갈라지는 것, 이런 개념을 쓰시면서 ‘우리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고정된 곳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하루는 학교에서, 하루는 지역사회 어떤 다른 공간에서, 매번 다른 시설과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대상들을 만나서 작업하는 굉장히 잔도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예술가들

이, 예술교육가들이 이렇게 (haft의)힘을 느낄 수 있게 지원기관으로서 어떤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예술가 스스로 자기 작업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그것이 그간에는 지원 사업 구조 안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구조, 그런 활동이었으나 예술가들이 그런 고민, 자기성찰적인 고민을 통해서, 또 예술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haft의)힘을 가질 수 있는 지원기관의 본격적인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승진    언제부터인가 단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돼왔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사업의 방식이 재단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 재단하고의 기본적인 관계는 없지만 현장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거꾸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야 할 때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접점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예술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접점에 대한 상상력들을 우리 지역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한 상상력들을 가지고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손동혁** 저도 이번을 계기로 예술 활동 방식의 확대 또는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공공영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확실히 됐으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조금 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도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저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앙에 있는 기관과 지역 기관이 협력하든 어떻게 하든 문화예술 관련한 방송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인력을 축적하고 계속 그것을 생산해내는 어떤 시스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 오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오셨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를 들어 지역의 광역재단, 기초재단들이 협력을 하든 뭘 하든 시스템 하나는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도 한광연과 전지연에서 마련해주셨는데, 그 자체로도 고마우나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코로나19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짧더라도 많이 나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리포트라도 한 100여 명 이상의 리포트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그다음 논의들을 이어가는 식의 프로젝트들을 오히려 지금 지역문화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광연과 전지연이 협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 번의 요청을 드립니다.

○ 장세길 위기가 닥치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정도의 인식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자체든 예술인이든 다 동일하게 재단이 어떤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지키고 있는 최전선의 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형성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요. 저는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해서 고생해서 했던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후에 재단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런 예술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임학순 고맙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대응체계라든가 위기진단,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아까 손동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특히 이후,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참고해서 1차 버전 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위기상황이지만 우리한테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 3부 - 포스트코로나19와 지역문화

---

- ▷ 코로나 이후,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지역문화의 위상과 가치는 무엇인가?
- ▷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가상공간의 의미와 전망은?
- ▷ 전염병 뉴노멀 시대, 지역문화정책의 과제는 무엇인가?

참여자 :

---

임학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추미경((사)문화다움 대표),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전고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임학순 오늘 ‘코로나19 이후 지역 문화예술’을 주제로 이슈 세미나를 진행 하고 있는데, 제1주제에서는 위기의 지역 문화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대응 정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지역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연 문화와 예술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가 이번에 코로나 환경에서 가상공간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관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바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환경이 일시적인 1회성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일상화될 수도 있고,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역 문화 정책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경을 보면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취약한 영역이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대응 차원에서 긴급 정책들을 많이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문화와 예술이 척박하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환경에서도 문화예술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 자체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



상이 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불평등이라든가 연결망의 와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문화와 예술이 중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 ○ 정종은

일단 근원적인 관점에서부터 코로나 스타일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종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든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리고 우리 상황에 비춰보자면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또 IMF 사태로 불리는 그런 위기들에 종종 비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위기들의 공통점은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예로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 같은 경우는 중세 봉건제를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IMF 사태 같은 경우는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이라고 불렀던 개발 국가형 경제운영체제의 종언을 가져왔죠.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는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제의 종언을 일으킬 것이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 공통의 어떤 경험이랄까요. 또는 그것이 공통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남을 텐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했느냐는 것에서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거리두기를 반강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거리두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뭔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홀로학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언택트 기술이라든지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원격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 같은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훈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홀로학이라는 두 번째 국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멈춤이 일어났고 그 멈춤 속에서 성찰을 해 보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과 근무와 소비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의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모두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성찰을 모두가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관행으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공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화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신화가 벗겨지는 게 네 번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진국 신화가 깨졌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은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같은 상황에서 감염자가 1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8만 명대 후반이죠. 우리하고 비교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 정도밖에 위기관리를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미국만 그런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의 빅 3, 빅 5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마치 생각했던 그런 선진국들의 신화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신화라든지 또는 도시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거야.’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멈춤과 성찰 그리고 신화의 어떤 종식 그리고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문화정책, 문화정책 얘기합니다마는 문화가 단순히 예술과 콘텐츠 같은 장르로서 섹터로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문화기본법에도 보면 세 가지 가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유성,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자유성과 같은 가치는 우리 의식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성과 개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할 권리, 가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두 번째 가치가 얘기가 되는 거죠. 다양성과 공동선을 위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개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이 바로 표현 문화의 전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가 과잉 접촉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언택트 시대로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관계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표현문화의 수준은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가치 또는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세계화의 신화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경이 붕쇄되면서 서로 간에 각자 도생하는,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2.0버전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지역과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로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이 초반인데 너무 길어져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뒷부분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기본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깔고 그 안에서 로컬

의 역할을 확대하자라는 것이었다면 저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로컬에 더욱더 주목하고 로컬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고민하는 전후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런 언택트 경험을 통해서 제시된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호모루덴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 파생된 개념이 홈루덴스라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홈루덴스족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데 갈 수 없으니 집에서 놀이하는 집,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72%가 “나는 홈루덴스족이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용어인데, 이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나 계층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홈루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행이나 숙박이나 이런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그래도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로컬의 재발견이 일어난 거죠. 마을이라든지, 햇별은 쬐야 되니까요. 그런 산책들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살고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학순    의식 문화, 표현 문화, 관계 문화의 관계라든가 지역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김혜인    저는 사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나 이거에 대한 전망을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변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여  
러 이슈들이 사실 그 방향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  
리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 대부분 다 예상했던 미래가 대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  
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긍정적으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나가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될 거야라고 긍정적인 미래로 전망  
했던 것이 사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맞닥뜨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말하자면 언택트로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집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이 미래형 일자리와 미래형 노동의 모습일 거야  
라고 전망을 해 왔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아직까지는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급  
하게 온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만, 저는 총론으로는 어차피 가게 될 미래의 방향에 속도  
가 굉장히 빠르게 온 거에 매개체로서 말하자면 코로나19  
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물론 부정적인 이슈이지만 그  
런 게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경제 리포트라든  
가 우리나라의 리포트들도 보면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형태의 저성장일 것인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생각보다 어떻게 빠르

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같은 것들이 되지만 사실 이전에 5년 넘는 기간 동안 다음 해를 전망할 때는 계속 저성장이라고만 우리는 전망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심각하게 저성장이라고 얘기될 거고 사실 올해에는 말하자면 큰 사건이 터진 거고 그 큰 사건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과 많은 긴급한 문제해결 방식이 올해 굉장히 많이 투입들이 되는 건데, 사실 그거에서 더 어려워지는 해를 맞게 되는 건 아마도 내년이겠죠.

사실 지금은 지금 있는 것들에 모래 덮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해이지만 내년은 그것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망이 대부분인 걸 보면 내년이 굉장히 힘든 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많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슈는 이때쯤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한 달이 더 연장되고 이때쯤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두 달이 더 연장되고 이런 현상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들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내가 딱히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관계성이 끊기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가를 너무 빠르게 확인하게 되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최근에 코로나가 만들어낸 네 가지 계급의 직종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죠. 첫 번째 계급의 직종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기의 일을 계속해도 자신의 직업에 아무런 위험이 있지 않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에 필수적으

로 필요해서 말하자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직접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필수적인 직업군이어서 자신의 직업은 유지되는 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직접 이 자체가 위험해지는 자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잊혀진 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되고 코로나가 다시 말하자면 부각시킨 나의 직업은 어느 정도의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만들고 또 나의 가정의 형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돌봄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인가도 확인하게 만들고 또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도 나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케어가 되는 존재인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간인가를 너무 낱낱이 확인하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려운 심리를 겪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문화 예술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위치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뒤쪽에 좀 더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가장 큰 부분 중에 지금 이런 사태인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찾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명확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본인들에게 너무 확 오게 됐고,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다음에 다른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보다 희망적인 미래라는 게 내 앞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생각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됐다면, 사실 문화예술은 그러



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 수 있고 또 문화가 보여준 내가 당장 이거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은 결국 우리의 문화적인 공동체이니 이런 보호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심리적, 문화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될 것 같고, 되어야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추미경 일단 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변화라는 게 물리적 거리부터 시작해서 심리적 거리나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많이 뒤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나 예술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은 그 상황에 어떻게 살아남을 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살아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는 문화의 기본적인 역할이 굉장히 저는 다양하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인데, 60년대의 문화, 70년대의 문화 혹은 2000년대의 문화 지금 2020년대의 문화가 있고 앞으로 2030의 문화가 펼쳐질 텐데 항상 그 문화의 본질적인 변화나 위기들은 존재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차이가, 어떤 격차가, 어떤 거리가 생기고, 어떤 배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화적인 정책들을 만들거나 문화적인 안전망을 만든다고 생각

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난 시기의 변화보다는 워낙 빠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급격한 근원적인 변화도 있고 또 문화예술 분야가 제일 약한 미디어 기반에 혹은 온라인 기반에 기술적 변화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과 문화가 본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자신의 미션을 찾기도 전에 존재하기 위해서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나 생활의 기반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예술 문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이 변화를, 변화된 사람들과 사회의 생활양식이나 관계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새롭게 재구조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이런 논의와 담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문화와 예술의 성찰적, 본질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 **전고필** 일단 무엇보다 이 상황들이 어떤 익숙한 것들, 관행적인 것들과의 결별들을 요구하는 상황들, 우리가 원치 않은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야기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예술 전반을 봤을 때 미디어가 그러하듯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했듯이 기존에 어떤 관습적인 미디어에 의존했던 시대에서 새로운 뉴미디어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술 부분에서도 순수 예술이나 장르 예술의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들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이런 반면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류의 흐름이나 이런 부

분에서 하나의 큰 예처럼 BTS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뉴미디어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인 활동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봤는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상황에 직시하게 됐다고 보입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영상 미디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전문성, 자기 기술력들을 확보해야 되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기반의 콘텐츠들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 것인지. 뭐랄까, 러브 유어 로컬이라든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천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획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몇몇 지원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으로 내려지는 지원 정책이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보고 또 소비자들하고 같이 조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요구들. 이거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력들을 키워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원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관객은 개발해야 되는데, 그 관객들이 대면적 관객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객 개발에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런 때 뭘 해야 될까. 중간 지원조직들의 역할들이 굉장

히 중요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각자가 자기 기획력과 자기 관객들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함께 움직여서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 임학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코로나 환경 자체 또 이후 역시 문화와 예술이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당장 내년에 경제가 저성장 시대고 또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문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릴까 말까 이슈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사실은 경제가 안 좋을 때 더 문화적인 욕구가 큰 건데 예산을 줄이는 기존의 관행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새롭게 이번에는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추미경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많은 기반이 문화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정책 그다음에 기존의 문화 활동 중심의 문화정책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이벤트나 교육 활동, 예술의 창작 이런 것들만 염두에 두니까, 그 예산을,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나 대면 현상의 현상들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화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

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인류가 국가의 통제로부터 어떻게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많은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 지역의 관계 혹은 예술가와 관객의 관계, 창작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형태의 예술이나 문화의 관점에서의 재원의 할당된 규모를 줄이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사회현상으로서의 문화 또 지역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문화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 문화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또 여러 부처가 함께 그런 현상들을 그런 가치관들을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예산이 확대가 되고 또 그 쓰임새라는 것이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학순** 그렇다면 지역 문화정책 현장에서도 문화와 예술이 무엇인가 또 문화예술의 가치라든가 지역사회의 관계,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전고필** 실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당장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만 하더라도 체육기금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지원되는 돈이 단순하게 보더라도 1,5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국외 여행이나 이게 다 통제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관광진흥 기금이 아예 다 환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이라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추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도시재생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이나 어촌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화적인 중요성은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그런 결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전부터 요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는 별책부록처럼 쓰였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별책부록이 아니라 최전방위에서 문화적인 사회 문화의 안전망을 위한 부분에서도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되는 바입니다.

○ 임학순 언택트(Untact)상황이 되면서 가상공간을 예술가와 소비자가 만나는 어떤 또 하나의 공간으로 접근해보자. 이미 이런 시도는 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에서는 일반화된 거죠. 음악산업만 보더라도 이미 플랫폼, 음원 이런 구조들이 있고, 비즈니스로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럴 경우는 사실 브랜드라든가 독과점 현상이라든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예술인 경우 아직 이런 미디어 기반의 플랫폼과의 연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접근이 아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또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가 입장에는 어떤 영상을, 자기가 만든 공연을 새로운 플랫폼에 올린다고 하는 거 자체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사실은 그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지원했던, 지원했던 문화예술 그런 창작물들이 ‘어떻게 또 소비자에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서 유튜브라든가 또 스트리밍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순수예술 차원에서 과연 이 가상공간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향후 또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현장에서도 아마 이에 관한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이슈를 설정을 해 봤습니다.

○ 추미경 이건 아마 순수, 기초. 아주 기초예술 부분에서는 이 코로나 환경 자체가 가장 당황스럽고 낯선 영역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예술의, 전통적인 개념의 예술의 본질로 갈수록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를 해야지만 사실 이제 소통이 되고 또 예술적인 창의성이 발현되고 이런 구조였다가 이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플랫폼에 기존의 어떤 형태의 창작물들이나 작업들을 올린다거나 스트리밍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아마 초반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다른 영역, 스스로가 그런 기술까지나 리터러시를 가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여러 분야에 어떤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거나 좀 융합적으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예술이 이런 가상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또 가상공간, 지금은 기존의 창작물들을 스트리밍하는 차원이거나 혹은 이렇게 분배 내지는 유통하는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예 이런 가상공간이나 이 4차 산업 환경, 이런 변화된 환경에 ‘예술의 창작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예술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광범위한 실험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가 토론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가장 앞서서, 상식적으로는 가장 앞서서 이런 사회를 일궈내야 되는 계층이 예술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인들이 또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감성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펼쳐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현상은 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미디어 환경을 좀 쫓아가기에 좀 급급하다. 그래서 오히려 본연의 예술이 해야 할 역할들, 혹은 문화가 해야 될 역할들에 놓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에 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이슈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지원과 인큐베이팅 작업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돼서 미래를 조금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학순 정종은 교수님께서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슈도 제기하시고 연구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과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죠.

○ 정종은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김혜인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빨리 다가온 계기가 됐다.’는 그 얘기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6년 초반에 다보스포럼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온 다음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굉장히 붐이 일어나면서 정부 예산 포함해서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시작해서 IoT 기술, 로봇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이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코로나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믹스드 리얼리티(Mixed-Reality)같은, 이런,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투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기술개발 경쟁들이 있었는데. 현재 그렇더라



도 그것은 이제, ‘이제 앞으로 올 거니까 이렇게 빨리 준비 하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갑자기 소비자가 늘어나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형성 같은 거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훨씬 당겨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좀 같은 데서, 물론 이슈가 있었습시다만 화상채팅을 다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훈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존 공급자들의 어떤 기획이나 개발 같은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더 급속도로 이렇게 ‘급물결을 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우세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술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예술산업과 관련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인터뷰들을, 예술인들 인터뷰를 많이 해 봤습시다마는 한 인터뷰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연출자셨는데. 연출자께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에 연출자가 총 100명이 있다면 자기 이름 걸고 매년 안정적으로 연출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뭔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뭔가 다른 방식의 그 루트들을 찾아야 되고 자신이 어떤 예술적인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국토부나 여러 다른 데에서 문화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열리고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연출가들은 또 별로 없다.’ 뭐 교육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들은 늘어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가상 공간, 이런 어떤 언택트 기술 그리고 원격 관련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까 전에 우리 전고필 위원님께서 ‘BTS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 예술계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집 세고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교수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이번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캠퍼스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부랴부랴 대학들이 사이버 캠퍼스 뭐 서버 구축하고 뭐 확대하고 교수들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의 다 합니다. 은퇴 몇 년 안 남은 분들도 과거 지난 10여 년간 교육부가 그렇게 많이 새로운 어떤 교육방식. 특히 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이라든지 플립러닝 (Flip-Learning)같은 이 키워드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거든요. ‘이제 나는 곧 은퇴할 거니까.’라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 단위로 막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생들 서비스를 해 줘야 되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다 해요, 공급자들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이런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플립러닝 같은 방식은 지식전달은 온라인으로 하고 만났을 때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토론이라든지 프로젝트형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대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였는데 다 동의는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플립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이제 교수들은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예술인은 남는 거죠. 예술인은 여전히 근대적인 어떤 예술개념에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는 조물주고, 근대적인 예술가는 조물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물주고 우리의 성전은 극장과 미술관, 박물관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들이 폐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아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나친 과잉 콘텐츠 사회에서 이런 언컨택트 경험을 통해서 과속컨택트 사회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적정 컨택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로 하면, 대학교육을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블랜디드의 어떤 밸런스가 도대체 원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플립러닝에서 온라인의 지식 전달과 오프라인을 통한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교수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코칭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둘 사이의 밸런스. 그래서 적정 컨택트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예술인들도 이제는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물론 서로 시너지적인 경쟁은 좋겠습니다마는 콘텐츠 쪽의 시장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1년에 5조 원씩 늘어납니다. 예술시장은 그대로예요, 1조 살짝 넘는. 콘텐츠 시장은 2015년에 100조 넘어간 다음에 매년 5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예술 애호가들만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BTS 언급하셨는데

BTS가 6월 중순에 라이브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방방콘서트, 방방콘을 했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것들 편집해서 했던 거라면 6월 달에는 이제 ‘방방콘 더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또 보면 동시접속자 수만 해도 뭐 엄청난, 수십만 명이 접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BTS가 라이브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NT라이브가 그런 공연 실황중계로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여 년을 살펴보면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관객 친화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건 어떤 극장에서의 어떤 기획이었다면,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그런 월드투어 경험들을 반영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더 라이브 공연을, 콘서트를 중계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콘텐츠 업계와 예술계가 좀 같이 고민하는 점점들도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어떤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면 좋겠다’고.

하나는 뉴스입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프로젝트 광어’인가요? 해서 예술인들 70~80여 명들이 모여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기다리면서 있을 수 없겠다.’ 해서 부산지역의 예술인들 70~80여 명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 단체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하는 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싶다.’라고 했다고 하는

데요.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 임학순     적정 컨택트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순수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이나 또 게임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시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공공성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정컨택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공 부분의 역할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장과의 만남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 또 그걸 통해서 지적재산으로서의 그 순수예술 콘텐츠,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할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순수예술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그 맥락을 좀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인     지금 문화예술 계열이 온라인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그냥 최소한의 통로? 그냥 뭐, ‘그냥 놔두기 좀 뭐하니까 기존에 찍어놔던 공연실황중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보지, 뭐.’라든가 아니면 ‘구글 뮤지엄 프로젝트로 원래 전시장 찍어놔는데 사람들 별로 안 보는데, 이번에 전시회도 다 못 오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하지 뭐.’ 혹은 이제 이전에 그런 공연실황을 그대로 유료서비스를 해 왔던 그래도 좀 대형의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단이나 이런 데들이 ‘아, 너무 사람들이 다 힘든 것 같으니까 한 번 풀어볼까.’ 하고 무료로 풀었더니 ‘원래는 한 3,000명 정도 그동안 접속을 했었는데 몇 십만이 하더라.’ 이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처럼 흘러가는데 사실

너무 전반적으로는 너무 초보적 단계의 이야기죠.

○ 추미경 맞아요.

○ 김혜인 지금 좀 전에 정종은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대부분의 것을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예술계와 또 똑같이 또 공공에서 지원하는 쪽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하자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Americans for the Arts’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위협이 된 예술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한 70% 정도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겠죠, 사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분기별로 조사 나오는 거 보면 공연예술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있기 전’ 그러니까 ‘주의단계 이전’ 그다음에 ‘심각단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보면 96%, 97%가 급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문화예술 산업계열로 이렇게 분야를 나눴을 때 유일하게 올라간 분야가 딱 하나 있어요. 게임 분야만 전년 동분기보다 오히려 올라갔죠? 왜냐하면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방구석 산업계열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되게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이거는 종식될 거야.’라기보다는 ‘언제든 이런 상황은 또 올 수 있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경제계에서는 그런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한 얼마 전에 되게 대유행을 했었던 스페인 독감이 흘러갔던 걸 보면 이게 만약에 1차 대유행으로 지금 시기라고 보면 2차 대유행은 이거의 한 6배 정도가 심했던 걸로 나오고, 그거 텀이 지금으로 치면 한 이번 가을, 겨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3차 대유행이 그 한 분기 정도 지나고 ‘1차

보다는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하고 종식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들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 가을, 겨울들이 어떨 거냐? 그게 가장 큰 이슈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측해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른 전염병이 웬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불안감과 위험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문화예술 계열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현장형이 가장 큰 특수성이고 차별화된 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믿어오고 ‘그거로만 된다.’라고만 해 와서,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이든 온라인 기반이든 다른 형태로 제작되고 소비되는 형태를 애써 많이 눌러왔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 정도로만 계속 생각해 왔고 창·제작을 하는 방식 자체의 디폴트값을 온라인으로 놓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문화예술은 대부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든 디지털기술 얘기를 하든 대부분 ‘나는 원래 이런 작품을 만들 건데.’의 기본 프레임은 현장 베이스를 놓고 스토리 라인도 짜고 구성을 짜고 그거에 좀 더 좋은 구현을 위해 기술이 붙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아예 이게 현장 베이스는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제작될 거라는 걸 기본으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어떤 공연, 어떤 전시, 어떤 작품들을 전달할 건지에 대해 기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이 부분은 사실 예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깊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공공의 역할은 그런데 그게 그러면 ‘예술인들이 그냥 그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으로 무언가를 제작하려고 하면 그

동안 해오지 않았던,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기술적인 보조와 지원과 노하우와 교육이 모든 게 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작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전통적인 창·제작 방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실패를 필요로 하잖아요. 내가 원래 정통적으로 만들어왔던 창·제작 정도에 질로써 온라인형을 만들려면. 그러면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들이 그 실패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는 기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당장 생계의 위협과 너무 긴급한 일들이 있어서 생계지원과 일단 미뤄진 모든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완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거와 함께 더 심각하게 크게 준비돼야 하는 건 이후에, 이후에 문화예술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 중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는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하는 형태의 지원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단 해서 ‘1년 안에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걸 없앤 상태에서의 그 지원에, 말하자면 예술가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공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고필      제가 아까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더 말씀드리기 그러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언택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그 기획을 통해서 다시 뭐랄까요. 시스템화들을 구축하는 데, 그냥 예술가들의 온전한 힘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조직과 또 정부의 지원책이, 이들이 같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 상황들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임학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전염병 뉴노멀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긴급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상화로 돌아올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문화재단이라든가 지역문화정책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업, 조정, 네트워킹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려하시면서 ‘지역문화정책 새로운 변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들이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역문화정책의 어떤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어떤 지역에 대한 주목, 자신의 집과 마을 또 지역에 대한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새로운 관객 또는 청중 또는 소비자들이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문화예술계와 이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의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특화발전의 방향과 맞는 어떤 그런 방안들, 지원을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 만들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과거부터 계속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지역혁신체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본격적인 투자와 실제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 같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

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국가와 또 지방 정부 간의 어떤 협치 체계가 이제는 좀 계속 얘기되어왔던 거지만 이런 어떤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역이 훨씬 더 주도하는, 이 사람들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런 어떤 혁신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거. 그리고 아무리 또 혁신체계를 만들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국가적인 인정 그다음에 글로벌한 인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 한류가 어떤 타 지역에 들어간 것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겨울연가’라는 게 있었고 중화권에서는 ‘대장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를 예를 들자면 광주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지역문화의 혁신체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겨울연가’나 ‘대장금’ 같은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역마다 또 지역의 예술계가 뭔가 어떤 역량을 집중해서 그 지역의 브랜드, 또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그 지역의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아까 전에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예술계가 이런 어떤 언택트 상황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기획개발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방식으로 ‘돈을 받았으니 언제

공연을 올려라, 언제 전시를 해라, 언제 출판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획개발이라는 새로운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획개발. 특히 이제 지역과 관련한 정책이라면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자산이나, 또 지역의 발전 방향과 연관해서 예술의 어떤 실험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모라든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떤 그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술인들이 예술단체들이 기획개발에 ‘지금은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언택트 상황이 초래하는 어떤 걱정 콘텐츠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과잉 컨택을 좋아합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나. 모이면 자기가 대접받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권위를 과시하고 기득권은 과잉 컨택트를 좋아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텐데. 이 계기를 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논의해 왔던 어떤 위계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 기득권의 관행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계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어떤 그런 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권위적인 어떤 위계질서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문화가 재배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조적으로 헬조선, 헬조선 얘기하면서 꼭 따라붙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의식,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라든지 그 비교의식이 결국에는 어떤 경쟁중독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경쟁중독이 인종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득권이 중심으로 된 그런 문화들이 어쨌든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의식문화의 재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관계문화의 어떤 재구조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이런 의식문화와 관계문화가 변동하고 있는데 문화계 자체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많은 ‘이런 관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추미경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좀 위기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좀 통제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를 테면 한국에서 코로나를 잘 이겨냈던 것들이 굉장히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의 일사분란한 체제 플러스 사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포커싱은 첫 번째에 저는 행정 쪽으로 많이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혹은 지자체와 재단이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코로나 환경을 뉴 노멀이 됐을 때는 저는 엄청난 자율성과 혹

은 유연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 한 미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잘 정리되지 않고 사실은 오히려 은연중에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은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전환들을 할 수 있는 혹은 이런 전환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좀 정책이 될 수 없을까.

사실은 대부분, 지금도 저희가 ‘예술가는 어때야 된다.’ 또 ‘지역은 어때야 된다.’라고 이미 규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통제화된 어떤 구조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름을 달고 또 어떤 뉴 노멀이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과거처럼, 과거와는 다른 데 되게 정교화된 좀 그런 방식이 되지, ‘통제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변화가, 위기가 왔고, 변화가 돼야 되고 이 변화는 우리 모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중앙정부도 지역정부도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도 예술단체도, 전문가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내가 논의를 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방침을 낼 때도 이미 대안이 있는 것처럼 던져내는 방식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환 혹은 실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도.

○ 김혜인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혹은 ‘생각보다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지역문화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을 해 줘야 하는 역할이 될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얘기들은 사실

생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생산자 스스로도 변화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불안한 이유는 내가,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변화를 했어, 만약에.’ 그런데 ‘과연 누가 봐줄까?’ ‘그거를 좋아해 줄까?’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문화정책에서 사실 지역문화정책을 우리가, 사실 지역문화정책이라는 게 또 ‘중앙에서 하는 전체적인 정책과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나.’ 이걸 얘기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지역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과 훨씬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있는 정책의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큰 강점과 장점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새로운 소비나 새로운 향유에 대한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러면 생산자들은 어떠한 적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느 지점까지의 적응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문화예술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작품을 만드세요.’ 혹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자, 이런 작품을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의 적응이 필요하면, 적응이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자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중간에 빈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문화정책의 가장 고민을 해 줘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고필 가장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게, 아무튼 이 상황들이 저희에게 ‘이 문화정책 자체들이 어떻게 수립됐는가.’ 다시 재질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간의 정책의 방향들이 이 공급자 주도로 많이 흘렀다고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생산자의 입장에서든 창의·예술적 입장에서 모든 정책들이 생산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들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이 부분에서 인류학적 관점이나 사회과학적인 관점, 사회학적 관점들이 같이 관통해내서 철저하게 분석해내고 이에 대한 ‘이다음 단계의 대응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지역의 정말, 지역의 생산자나 또 소비자가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예술의 생산자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역에 남아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는 문화 인력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의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계의 위협요인들을 재검토해서 다른 학문적 입장이나 다른 사회현상적 입장들이 이 안에 관통돼가지고 ‘재분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임학순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련 연구라든가 토론, 담론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도 한광연과 전지연과 함께 또 여기 지역문화와 관련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논의들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